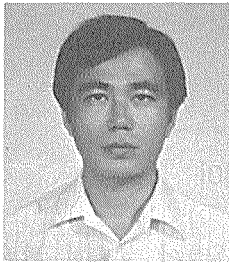


원貨 切上과 対応 戰略



李 煥 浩
世宗大学校 貿易学科 助教授 / 経博

최근 원화의 급속한
절상추세는 국제수지 흑자로
인한 통화관리의 어려움과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의 통상마찰 축소에
그 요인을 두고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의 대책으로서 정부측에서는
절상폭과 속도를 조정하여 파급효과를
최소화시켜야 하며 기업에서는
원高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1.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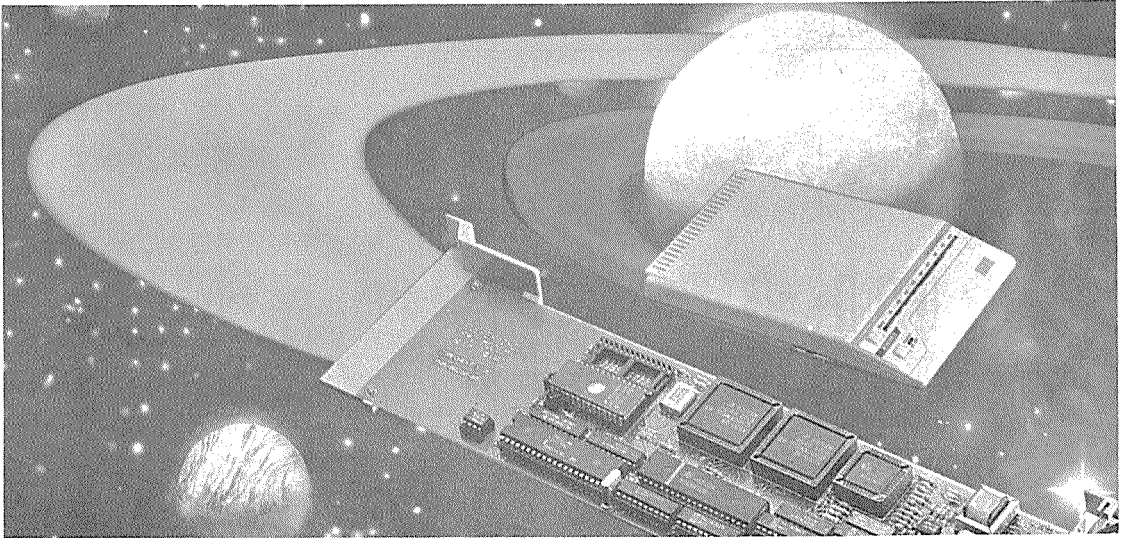
최근 우리나라의 원화가치가 예상보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절상됨에 따라 이러한 추세가 언제쯤 어느 선에서 멈추고 안정되느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하여온 수출이 원화의 급속한 절상으로 크게 타격을 입는 경우 모처럼 다져진 국제수지의 흑자기조가 뿌리채 흔들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으로서나 우리나라 국민경제 전체로서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내외적 여건으로 보아 원화의 절상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하는 경우 정책당국 으로서는 급속한 원화의 절상이 국내경제나 산업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여 그 절상속도를 적절히 조절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으로서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원화절상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여 나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먼저 최근 원화절상이 어떠한 배경하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원화절상이 국민경제나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보고 이에 기업은 어떻게 대처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원화절상의 배경

최근 우리나라 원화의 급속한 절상추세는 기본적으로 국제수지의 흑자규모를 적정수준에서 유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이 국제수지의 흑자규모를 적정수준에서 관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우선 대내적 요인으로는 국제수지의 대폭적



원화절상의 증장기대책으로는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 내수시장 강화,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들 수 있다.

인 흑자로 인한 통화관리상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 작년중 우리나라는 외채의 조기상환, 자본도입의 억제 등을 통하여 자본수지가 마이너스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입 등 경상수지가 98억달러에 달하는 흑자를 보여 종합수지가 52억달러의 흑자를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작년중 해외부문을 통한 통화공급은 약 4조 5천억원에 달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통화당국은 무역금융의 축소, 통화안정증권의 발행 등을 통하여 강력히 통화를 환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중 총통화증가율은 18.8%로 목표치 18%를 상회하였다. 이와 같이 과다한 통화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자원을 비생산적인 곳으로 흐르게 하여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수출의 가격경쟁력을 악화시킨다.

또한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우리나라의 최대수출시장인 미국과의 통상마찰을 줄이고자 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 총수출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상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미무역수지는 1970년 후반부터 흑자를 보이기 시작한 이래 최근에는 그 흑자폭이 90억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한편 미국은 달러화가 최근 수년간 일본, 서독 등 주요선진국 통화에 대하여 대폭적인 절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우리나라, 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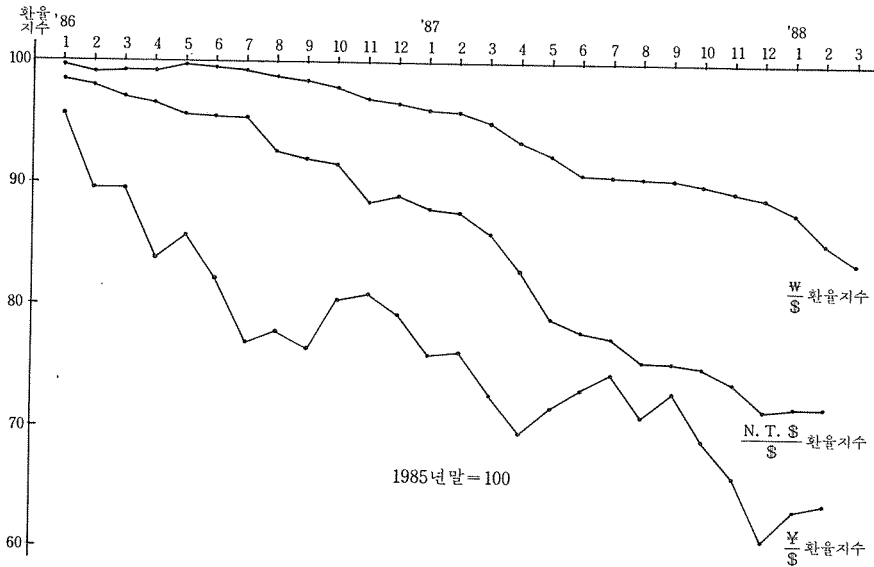
등 신흥개도국에 대해 수입개방과 통화절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미국을 주력 수출시장으로서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어느 정도의 수입개방과 원화의 평가절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3. 원화절상의 추이

우리나라의 원화는 울들어 급속히 절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우리나라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746원 20전으로 지난 연말에 비하여 5.8%가 절상되어 이를 연율로 환산하면 그 절상률이 23.2%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원화의 절상은 1986년중 3.2%와 1987년중 8.0%의 절상에 비하면 상당히 빠른 템포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원화의 절상추이는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엔화나 대만의 N.T. 달러의 절상추이와는 상당히 대조를 보이고 있다. 즉 우리나라 원화는 1986~87년중 완만한 절상을 보이다가 울들어 급속히 절상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엔화는 1986~87년중 그리고 대만의 N.T. 달러는 1987년중 급속히 절상되고 최근에는 상당히 안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국, 일본, 대만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지수추이



4. 원화절상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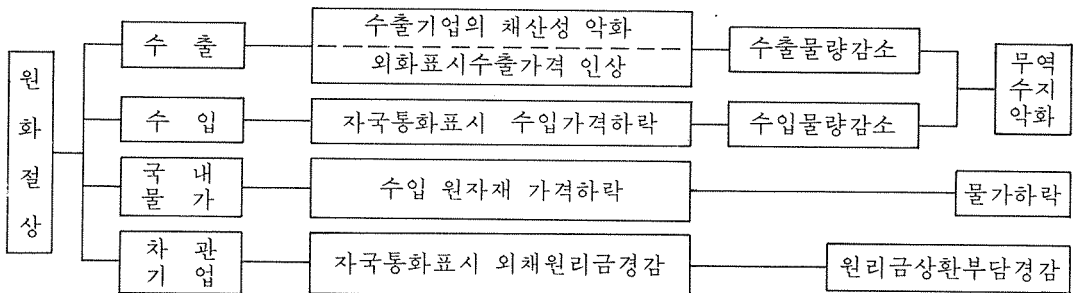
원화절상이 우리나라의 무역수지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원화절상은 직접적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의 악화를 초래하고 간접적으로 경제성장의 둔화, 고용의 감소 등을 초래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원화의 절상은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수출단가의 인상을 불가피하게 함으로써 수출물량의 감소를 가져온다. 따라서 수출액의 증감은 수출물량의 감소와 수출단가의 인상분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품의 대부분은 상당히 가격에 민감한 품목들로서 수출단가의 인상이

어렵기 때문에 원화절상은 직접적으로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출기업이 채산성의 악화를 막기 위해 수출단가의 인상을 단행한다면 이는 수출물량의 대폭적인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화절상은 수입상품의 원화표시가격을 하락시킴으로서 수입을 촉진시킬 것이다. 따라서 원화절상은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경제성장의 둔화와 고용의 감소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최근의 급속한 원화절상과 관련하여 유념하여 둘 것은 급속한 원화절상의 초기에는 오히려 무역수지가 좋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는 원화의 급속한 절상을 예상한 기업들이 채산성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선적을 앞당기는 반면 수입은 가능한 한 늦추기 때문이



원화절상의 효과

다. 따라서 외환당국이 최근의 무역수지 동향에 초점을 맞추어 원화절상의 폭이나 속도를 정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화절상은 수입원자재가격의 하락을 시켜 국내물가의 하락을 가져오고 또한 차관기업의 원리금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하여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상당부분이 최근 협상중인 임금의 인상과 상쇄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다.

5. 대응전략

최근 원화의 급속한 절상에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어떻게 대응하여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미 급속한 절상을 경험한 바 있는 일본기업의 경우에 비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단기적으로 기업은 받을 외화는 가능한 빨리 받아 원화로 바꾸고 지급할 외화는 가능한 한 늦게 원화를 외화로 바꾸어 지급함으로써 원화절상에 따른 환차손을 가급적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수출선적 및 대금의 입금은 조기에 이행하고 수입대금은 가능한 한 결제를 늦추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장기대책으로는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노력의 강화, 내수시장에 대한 판매 및 마케팅의 강화, 연구개발을 통한 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들 수 있다.

엔高에 대응하여 생산부문뿐만 아니라 사무부문의 생산성을 30%이상씩 증대시킨 일본기업의 교훈을 본받아 우리나라의 기업도 원高에 대비하여 경영합리화를 통한 원가절감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원가절감목표를 세운 공정, 사무자동화 및 설비투자의 효율을 높이는 근본적인 기업체질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원화절상에 따른 수출채산성 악화분을 경영합리화, 원가절감노력으로 전부 흡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경쟁국인 일본, 대만의 환율절상 대응전략을 참작하여 세계시장 점유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소품의 수출가격의 인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수출지원금융의 축소 등으로 수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감소되고 있는 만큼 잠재된 내수시장을 개발하고 이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내수시장에 대한 판매활동의 강화와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기술개발 등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부품·소재를 국산화함으로써 원가를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상품을 고부가가치화함으로써 원화절상으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분의 상당부분을 수출가격의 인상으로 전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생산거점을 해외로 이전하여 수직적·수평적 분업화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부가가치가 낮은 공정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이후의 공정은 재수입하여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을 하는 체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6. 맺음말

최근 우리나라의 원화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절상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속도로 계속하여 원화의 절상이 이루어 진다면 올 상반기 기준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이 700원대도 무너지지 말라는 법은 없을 것처럼 보인다.

우리나라가 작년중 유례없이 국제수지의 대폭적인 흑자를 보인 것은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 또는 대만 등의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원화의 절상속도가 완만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를 다시 바꾸어 말하면 최근의 원화의 급속한 절상으로 인한 국제수지의 악화는 일반적인 예측을 웃돌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따라서 정책당국도 기업이 원화절상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아가며 그 절상폭 및 속도를 조정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여야 하고 기업으로서는 본격적인 원高의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중장기적 대책이 시급히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